

주간 통일정세

2016-2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6.11	北, 김정은 생일 '은하절' 명칭 국가명절로 지정할 듯(자유아시아방송)
	6.12	北 김정은, 러시아 국경절 맞아 푸틴에 축전(연합뉴스)
		北매체, 김일성 동생 김철주 100번째 생일 맞아 찬양(연합뉴스)
	6.13	北김정은, 동방의 핵대국 공고히...국방종합대학 현지지도(연합뉴스)
		北, 만리마운동 행진곡까지 제작...속도전 독려(연합뉴스)
	6.14	유엔 북한대표부 외교관 29명 모두 남성(미국의소리)
		北, 포스터 활용해 유아 대상 반미, 반한, 반일 교육(연합뉴스)
		北, 김정은 지시로 평양 민속공원 해체...장성택 흔적 지우기(연합뉴스)
		北, 김정은 생모 생일 앞두고 유선중앙연구소 띄우기(연합뉴스)
		북한 속살 들여다보니...곳곳에 김정은 우상화 구호(연합뉴스)
北, 청년 결혼식도 70일전투...친위세력 챙기기(연합뉴스)		
6.15	北, 당 간부 대상 탈북 방지 교육(자유아시아방송)	
6.16	北김정은, 식료품생산공장 방문...미남 같은 첨단설비(연합뉴스)	
6.17	북한에 4D영화관 최소 12개...김정은 오락시설에 관심(연합뉴스)	
	北, 식량 자급자족은 또 하나의 수소탄...농업 투쟁 독려(연합뉴스)	
경제	6.13	北 김정은, 중국 내 북한식당 한국인 출입 금지령(연합뉴스)
	6.15	北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 노동당 39호실도 외화난(연합뉴스)
		작년 북한 무역 63억달러...6년만에 감소(연합뉴스)
	北 고려항공, 쿠웨이트행 여객기 또 운항(미국의소리)	
	6.16	중국 공안, 北과 무기밀매 자국민 수십명 체포(연합뉴스)
6.17	북한 희토류 20억t 매장 추정...생산량은 적어(연합뉴스)	
사회 문화	6.13	중국 파견 北 일부 근로자들, 김일성·김정일 배지 안달아(연합뉴스)
		북한에서도 사상교육보다 국어·수학...사교육도 활발(연합뉴스)
	6.14	북한서 택시기사 인기...채용시 뇌물도(자유아시아방송)
		北 간부사회, 당대회 선물과 유사한 가전제품 구매 열풍(연합뉴스)
	6.15	중국군, 북중접경 검문 강화...100m마다 검문하는 곳도(연합뉴스)
		대북제재로 北지방도시 어두워 졌다...평양과 밝기차 증대(연합뉴스)
6.16	北, 3월부터 주민들 중국 개별여행 불허(자유아시아방송)	

		평양시내 상품광고 다양해 졌네...지하철 객차서도 광고(연합뉴스) 北서 군인 강력범죄 기승...주민 규찰대 조직(연합뉴스)
	6.17	北, 탈북차단 위해 독일산 첨단 감청장비 배치(연합뉴스)
	6.11	미 국무부, 대북 추가제재 검토 시사...중국과 이행 협의(연합뉴스)
	6.12	中, 단둥주에 北공작원 구속, 53억원 압수...금지물품 밀수 관여(연합뉴스)
	6.13	北中, 7월11일 우호조약 55주년 기념 고위급 상호방문 가능성(연합뉴스)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반 토막(연합뉴스) 북한 핵탄두 10개 추정...전 세계엔 1만5천395개(연합뉴스) 북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준비 확인...대기업 문서 4만여건 해킹(연합뉴스) PC '중앙집중' 관리 시스템 허점 간파...진화하는 北사이버공격(연합뉴스)
	6.14	北, 美 대선국면 활용해 핵실험할 가능성 커(연합뉴스) 中학자 "北, 핵실험 또 하면 中 인내 한계"(연합뉴스) 북러 교역량 소폭 감소...北수산물 수출은 늘어(자유아시아방송) EU, 대북 외교교류 보류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탄자니아 북한병원 이용 환자, 의료진 상대 소송 준비(연합뉴스) 北,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대남 사이버테러 준비(연합뉴스)
외교 국방	6.15	北, 美 정밀공습작전 공개...침략전쟁 야망의 발로(연합뉴스) CSIS국장 "北, 평화협정 비핵화 접근 관심없어...핵보유국 목표"(연합뉴스) 中훈춘-북한 교통시설 확충 사업 활발(미국의소리) 中, 핵 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종 대북수출 추가금지(연합뉴스) NHK "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향상 추진"(연합뉴스) 러 당국자, 北 핵활동으로 핵실험금지조약 관심 높아져(연합뉴스) 北, 美 이어 유엔에 공개서한...사무총장 통일문제 기여해야(연합뉴스) 美 전문가 "北, 무수단 발사 실패 통해 기술 축적"(연합뉴스) 美연구기관 ISIS "北, 지난 18개월간 보유핵무기 4~6개 추가"(연합뉴스)
	6.16	美고위관리, 아프리카 방문해 북한과 관계단절 촉구(연합뉴스) 美민간서 '北정밀타격 시나리오'...공중 해상공격으로 核무력화(연합뉴스) 中, 유엔 대북결의 철저히행...필요시 추가조치 시사(연합뉴스) 북핵 조달채널 차단...원자력공급국그룹 다음주 서울총회(연합뉴스) EU, 북한 고려항공 역내 취항제한 조치 유지(연합뉴스)
	6.17	美CIA국장, 새 대통령에 첫 보고 현안은 사이버안보-테러-북핵(연합뉴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국 하원 위원회 통과(연합뉴스) 美 전사자 유해발굴 담당관, 北에 6천여구...찾을 준비돼 있다(연합뉴스) 중국, 당 대회에 고관 보내달라 반복된 北요청 거절(연합뉴스)

日 dots리현 해안서 北미사일 파편 추정 물체 발견돼(연합뉴스)

美북핵전문가 “北,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50개 보유”(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6. 11.

■ 北, 김정은 생일 ‘은하절’ 명칭 국가명절로 지정할 듯(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내년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은하절’이란 명칭의 국가 명절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최근 평양을 다녀온 대북 사업가는 RFA에 “북한이 내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명절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도 이 방송에서 “김정은이 이달 말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위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놓이게 되어 김정은 생일을 국가명절로 지정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분석함.

2016. 6. 12.

■ 北 김정은, 러시아 국경절 맞아 푸틴에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의 국경절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가 최고위급에서 채택된 공동문건들의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2016. 6. 13.

■ 北김정은, 동방의 핵대국 공고하...국방종합대학 현지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종합대학을 현지도한 자리에서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힘.
- 김 위원장은 이날 현지도에서 “국방종합대학의 기본 임무는 동방의 핵대국, 군사최강국인 선군조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여 나가는 기동감, 주체가 철저히

선 학술형 인재, 실천형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이날 현지지도에는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장과 조용원, 유진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함.

2016. 6. 16.

■ **北김정은, 식료품생산공장 방문…미남 같은 첨단설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식료품 생산 시설인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며 민생경제 분야 시찰 행보를 이어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이날 현지지도에는 안정수 당 중앙위 부장, 조용원·신만균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이 이들을 맞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6. 14.

■ **유엔 북한대표부 외교관 29명 모두 남성(미국의소리)**

- 유엔 북한대표부에 여성 외교관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는 이날 각국의 유엔 파견 외교관 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사무국에 공식 파견된 북한 외교관 29명 모두가 남성이라고 전함.
- VOA는 “세 지역 대표부에 여성 외교관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2곳뿐”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이 지역당 2~3명만 파견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표부를 운영하는 나라 가운데 남성만 파견한 국가는 북한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설명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6. 14.

■ 北, 포스터 활용해 유아 대상 반미, 반한, 반일 교육(연합뉴스)

- 다큐영화 ‘태양 아래’ 등을 통해 체제선전에 동심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탁아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전포스터를 활용해 반미(反美), 반한(反韓), 반일(反日) 교육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연합뉴스가 14일 평양과 신의주에서 지난달 4~24일 촬영된 사진 1천여 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탁아소 건물 내부에 미국과 일본, 한국을 적대시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다수 걸려 있었음.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한 북한의 교육방식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 대미, 대일, 대남 관계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봄.

■ 北, 김정은 지시로 평양 민속공원 해체...장성택 흔적 지우기(연합뉴스)

- 평양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수억 달러를 들여 조성된 평양 민속공원이 “이 공원을 보면 장성택이 생각난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폐쇄 지시에 따라 해체 작업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3월 말께 북한 관광총국은 중국 내 북한 전문여행사 측에 ‘내부문제로 4월부터 평양 민속공원을 관광할 수 없으니 앞으로 새로운 관광일정으로 대체·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선 북한 내부는 물론 해외에 활용 중인 평양 민속공원 관련 출판·홍보 선전물들을 모두 회수, 삭제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 간부층 내부에선 김정은이 평양 민속공원을 보면 ‘아버지(김정일) 생각이 난다’고 감격했다가 이제는 ‘장성택이 생각나서 없애 버리라’고 결정한 데는 장성택 숙청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생모 생일 앞두고 유선중앙연구소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가 유선암으로 사망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생모 고용희 생일(6.16)을 이틀 앞두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집중 조명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이런 고마운 품에서 우리 여성(여성)들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5단짜리 르포 기사를 통해 “개원 후 지난 3년 동안에만도 50여개 단위의 수만 명의 여성(여성)들이 이동검진을 받았으며 많은 여성들이 전문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소개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이 최고수위에 오름에 따라 향후 생모인 고용희에 대한 이상화 작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고용희 존재감을 알리면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말함.

2016. 6. 15.

■ **北, 당 간부 대상 탈북 방지 교육(자유아시아방송)**

-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방도시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RFA에 “강연회가 열린 것은 이달 초순”이라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탈북 방지 관련 강연회를 진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함.
- 북한이 이런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당원 출신이거나 성분이 좋은 고위층에서도 잇달아 탈북자가 나오면서 김정은 정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RFA는 전함.

2016. 6. 17.

■ **북한에 4D영화관 최소 12개…김정은 오락시설에 관심(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013년 4D 영화를 관람한 이후 북한 전역에 최소 12개의 4D 입체영화관이 들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3년 평양 능라도 유원지의 입체울동(4D) 영화관을 방문한 이후 전국에 걸쳐 12개의 입체울동영화관이 건설됐다”고 말함.
- 하지만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대부분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어서 문화생활이 아닌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멜빈 연구원은 지적함. 그는 “김정은 정권은 물놀이장과 스케이트 공원, 영화관 등 문화오락 시설을 짓는 데 주력해 왔다”면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문화오락 시설을 앞세워 주민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6. 12.

■ 北매체, 김일성 동생 김철주 100번째 생일 맞아 찬양(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촌인 김철주(1916~1935)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그의 행적을 찬양함.
- 신문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 이것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 동지의 생애에 관통되어 있는 고결한 인생관”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김철주가 ‘소년 혁명가’로서도 활약하다 1935년 6월 일제와 싸움에서 전사했다면서 “김철주 동지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이시였으며 우리 민족이 낳은 훌륭한 아들이시였다”고 주장함.

2016. 6. 13.

■ 北, 만리마운동 행진곡까지 제작…속도전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속도전인 ‘만리마 운동’을 주제로 한 행진곡까지 제작해 주민들에게 성과를 다그치는 것으로 드러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개인 논평을 통해 “만리마 시대에 전 인민적인 총진군 운동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시대의 행진곡이 또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최신곡 ‘우리는 만리마기수’를 상세히 소개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속도전에 동원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노래까지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자원과 시간 등에서 한계를 보이는 속도전에서 노동력으로라도 성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함.

2016. 6. 14.

■ 북한 속살 들여다보니…곳곳에 김정은 우상화 구호(연합뉴스)

-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해 곳곳에 구호를 내건 사실이 포착됨.
- 연합뉴스가 14일 북한 평양과 신의주에서 지난달 4~24일 촬영된 사진 1천여 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표어와 문구가 다수 눈에 띄.
- 입수된 사진에는 이밖에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 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과업 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등 7차 당대회(5월 6~9일) 관련 표어도 다수 등장함.

■ 北, 청년 결혼식도 70일전투...친위세력 챙기기(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조선노동당 지역 조직이 청년 수십 명의 결혼을 지원한 소식을 소개하며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친위세력’ 챙기기에 나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평남탄전에 올려퍼진 감사의 노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기사에서 “인민들이 새로운 전투 전야의 일요일 휴식을 즐기던 지난 5월29일 평남탄전에 경사가 났다”며 “74명 청춘남녀들이 도당위원회와 탄광당 조직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행복한 새살림을 편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이러한 보도는 지난달 치른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핵심 친위세력으로 자리 잡을 청년 세대를 교육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2016. 6. 17.

■ 北, 식량 자급자족은 또 하나의 수소탄...농업 투쟁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해 ‘식량 자급자족’ 능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승리의 통장훈(외통수)을 부르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수들의 그 무슨 고사작전이라는 것도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엇이나 마음먹은 대로 창조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짱이고 신념”이라고 주장함. 그러면서 신문은 “식량의 자급자족이야말로 원수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또 하나의 수소탄과 같다”고 덧붙임.
- 신문은 이밖에 김 위원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농촌에 영농물자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날에도 농기계 공장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덧붙임.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6. 13.

■ 北 김정은, 중국 내 북한식당 한국인 출입 금지령(연합뉴스)

- 중국내 북한식당들이 최근 한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명에 따른 것이라고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이 13일 보도함.
- 중국 선양(瀋陽)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지난 9일부터 선양 시내의 모든 북한식당에서 일제히 한국인들의 식당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선양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북한식당에 하달된 김정은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발생한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사건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임.

다. 경제 상황

2016. 6. 15.

■ 北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 노동당 39호실도 외화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들이 대북 제재로 심각한 외화난에 직면해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5일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통화에서 “최근 무역성 산하 회사를 비롯한 각급 무역기관들은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들까지 유동자금(외화)이 부족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함.
- 또 “평양의 무역은행들에 외화가 점점 고갈되어 그곳에 계좌를 둔 국가 공식 무역회사 돈 대출이 매우 힘들어졌다”면서 “무역회사 사장들은 ‘은행거래가 개인 이자 돈 빌리기(고리대)보다 못하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6. 17.

■ 북한 희토류 20억t 매장 추정...생산량은 적어(연합뉴스)

- 국내 연구진이 북한 지역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 17일 한반도 광물자원개발(DMR) 융합연구단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철(무산), 금(운산·대유동), 동(혜산·허천), 연-아연(검덕), 마그네사이트(대흥·쌍룡·룡양), 희토류(정주) 등 광물이 분포돼 있음.
- 이중 활용가치가 높은 희토류는 20억t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연구단은 분석함. 연구단은 북한 자원 개발 문제점도 분석했는데, 기술·재원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로 부존량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적다고 설명함. 채굴한 자원도 가공하지 못하고 원광정광 상태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재료연구소가 중심이 돼 꾸려진 연구단은 북한 지역 자원 부존 잠재성이 높은 광화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임.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6. 15.

■ 작년 북한 무역 63억달러...6년 만에 감소(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코트라(KOTRA)가 15일 발표한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외 무역규모(남북교역 제외)는 총 62억5천만 달러(약 7조3천700억원)로 전년보다 18% 감소함.
- 올해는 북한의 교역규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올해 들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임.

■ 北 고려항공, 쿠웨이트행 여객기 또 운항(미국의소리)

- 북한 고려항공이 지난달에 이어 쿠웨이트행 여객기를 운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VOA는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인용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하는 평양발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 편이 지난 14일(현지 시각) 오후 10시 9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이륙했다고 전함.
- 고려항공의 쿠웨이트 노선은 주로 중동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짐.

2016. 6. 16.

■ **중국 공안, 北과 무기밀매 자국민 수십명 체포(연합뉴스)**

- 중국 공안기관이 지난 3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중국 랴오닝(遼寧)성 대북 소식통은 15일 RFA에 “지난 3월 초 다롄 소속 해관경찰(세관 경찰)이 단둥으로 출동해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30~60대 연령의 밀수업자들은 랴오닝성 동강 앞바다에서 진행된 북한 제2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 당국이 이들과 거래해온 북한 해외 공작원 여러 명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덧붙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6. 16.

■ **北, 3월부터 주민들 중국 개별여행 불허(자유아시아방송)**

- 한 당국이 지난 3월부터 주민들의 중국 개별여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 3월 초부터 국가보위부가 중국 여행사증(비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중국에 나가 있던 사사(개별)여행자들도 국가보위부가 현지까지 찾아다니며 3월 중순까지 모두 귀국토록 조치했다”고 말함.
- 소식통은 “보위부 담당자들도 ‘중양에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하겠느냐’고 말한다”면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면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방문 후에도 사사여행자의 여행길은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함.

2016. 6. 17.

■ **北, 탈북차단 위해 독일산 첨단 감청장비 배치(연합뉴스)**

- 북한 국가보위부가 탈북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감청장비를 배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RFA에 “최근 보위부가 중국과 통화가 주로 이뤄지는 국경

지역인 신의주와 혜산, 무산, 회령지역에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들여온 첨단 장비를 배치했다”고 말함.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됐던 13명의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위부는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6. 13.

■ 중국 파견 北 일부 근로자들, 김일성·김정일 배지 안달아(연합뉴스)

-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이례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휘장(배지)을 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중국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RFA에 “중국 홍콩국제호텔에 파견된 북한 종업원들이 최근 들어 초상휘장을 달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동시에 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함.
-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내 금강산이나 평양관과 같이 북한식 명칭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종업원들은 여전히 초상휘장을 달지만, 외출을 할 때는 달지 않는다”고 밝힘. 이 소식통은 “중국 단동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책임자들도 초상휘장을 달지 않고 있다”며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사람이란 표시를 감추기 위해 초상휘장을 떼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함.

■ 북한에서도 사상교육보다 국어·수학…사교육도 활발(연합뉴스)

- 북한에서도 사상 교육보다 교과 공부를 더 중시하고 진학을 위한 과외활동도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옴.
-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발표된 논문에서 “무상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 교육의 공적 목표와

실제 관행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소유의 돈이 공적인 학교 제도에 영향을 주는 등 북한교육에서 시장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대비해 공식 문서에 나타난 북한의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북한 교육의 실상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2016. 6. 14.

■ 북한서 택시기사 인기…채용시 뇌물도(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택시기사가 인기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채용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기도 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RFA에 “평양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택시기사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직종이 되고 있다”고 말함.
- 한 소식통은 “택시 사업소에서도 운전수를 뽑을 때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뽑고 있는데, 이때 간부 인맥과 뇌물이 오간다”고 밝힘.
- 평안북도 지방의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소는 대외봉사중국 택시 사업소와 운수무역회사, 승용차 관리소 등이며, 이들은 중국에서 택시를 들여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간부사회, 당대회 선물과 유사한 가전제품 구매 열풍(연합뉴스)

- 북한 간부들 사이에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고급 TV와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4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판형(LED) 텔레비전이 (간부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최신형 텔레비전 보유 여부가 부를 평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간부들이 앞다투어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함.
- “주민들은 아직 변변한 구식 텔레비전(브라운관)도 없는데, (이 세상은) 진짜 양반 놈(간부)만 잘사는 세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함.

2016. 6. 15.

■ 중국군, 북중접경 검문 강화…100m마다 검문하는 곳도(연합뉴스)

- 국군 국경경비대(변방부대)가 북중 접경지역 검문을 강화했다는 현지 소식통들의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중국 투먼(圖門)시의 조선족 소식통은 최근 RFA에 “얼마 전까지 국경 지역 검문이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이후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런 현상(검문 강화)이 생겨났다”고 전함.

- 소식통들은 “변방 부대가 강 건너 북한을 찍은 사진을 집중 검열하면서 사진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음.

■ 대북제재로 北지방도시 어두워 졌다…평양과 밝기차 증대(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수도인 평양과 지방간 야간 시간대 밝기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옴.
- 이용석 스탠퍼드대 SK센터 연구원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15일 서울 삼청동 소재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미국 군사기상위성시스템(DMSP)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힘.
- 강미진 데일리NK 북한팀장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에서 특별히 눈에 띈 것은 휘발유나 디젤 등의 가격상승”이라며 “이는 수입이 중단된 것과 김정은 체제가 노동당 7차 대회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밝힘.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는 압박감에 북한 주민들은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 6. 16.

■ 평양시내 상품광고 다양해 졌네…지하철 객차서도 광고(연합뉴스)

- 북한의 수도 평양 시내에 최근 다양한 상품 광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싱가포르 대북교류 민간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조선익스체인지는 평양 지하철 객차 안에 설치된 화면에서 심장약이나 이동용품 광고가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밝힘. 이 외에도 조선중앙TV와 주말에만 방송하는 만수대 TV의 프로그램 중간에 상품 광고가 종종 나간다고 밝힘.
- 최근 영국 ‘로이터통신’도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북한에 출현하면서 평양에도 ‘광고’가 등장했다”며 “떠오르는 신흥 소비자층과 부유층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이 광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한 바 있음.

■ 北서 군인 강력범죄 기승…주민 규찰대 조직(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군인들의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려 참다못한 주민들이 자체 규찰대를 조직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16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당국에서) 군인들의 식생활 문제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자 군인들이 인민들의 재산을 털어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개인 주택에 침입해 텔레비(TV)와 배터리, 자전거, 집짐승(가축) 등 재산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함.
- “인민의 군대로 대변되는 북한 군인들이 무서운 강도로 돌변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규찰대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힘.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6. 11.

■ 미 국무부, 대북 추가제재 검토 시사…중국과 이행 협의(연합뉴스)

- 미국이 최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데 이어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함.
-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외신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금주 초 미·중 전략경제 대화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제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함.
-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29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은 매우 불투명한 체제여서 동기가 무엇인지, 단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기 어렵다”며 “다만 당초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도발 패턴은 우리와 동맹·우방들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비판함.

2016. 6. 14.

■ 北, 美 대선국면 활용해 핵실험할 가능성 커(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핵포기 압박을 받는 북한이 미국의 대선국면을 활용해 결국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옴.
- 평화재단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핵을 넘어 평화로’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대남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북한 고위층이 대북제재에 굴복하는 게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군의 충성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군부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도 예측함.

2016. 6. 15.

■ **北, 美 정밀공습작전 공개…침략전쟁 야망의 발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초토화한다는 내용의 ‘정밀공습작전’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미국의 노골적 침략전쟁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핵 시설과 핵 무력을 정밀공습하겠다는 극히 도발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현 미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과 핵전쟁 책동의 연장”이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무력침공이 본격적으로 검토, 준비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맞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며 “적들의 사소한 군사적 도발도 우리 식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으로 철저히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 **CSIS국장 “北, ‘평화협정-비핵화 접근’ 관심 없어…핵보유국 목표”(연합뉴스)**

-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칼 베이커 프로그램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투트랙 접근’에 관심이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말함.
- 베이커 국장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외무성 산하 기관 인사 등 4차례에 걸친 북측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북측이 한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전함.
- 북측과 ‘트랙 2’(민간) 차원의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베이커 국장은 “(접촉에서) 북측은 핵보유국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며, 미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전쟁 역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함.

2016. 6. 16.

■ **美고위관리, 아프리카 방문해 북한과 관계단절 촉구(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북한과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고 미국

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앙골라를 순방 중인 토머스 쾀트리멘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때)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함.
- 쾀트리멘 차관보가 아프리카에서 북한을 겨냥한 것은 아프리카와 북한 사이의 오랜 우호관계 때문이라고 VOA는 전함.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옴.

■ **美민간서 ‘北정밀타격 시나리오’…공중·해상공격으로 核무력화(연합뉴스)**

- 미국의 한 안보전문 민간 정보회사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중과 해상전력을 중심으로 정밀타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함.
- 16일(현지시간) 미국 스트랫포(STRATFOR)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자로 ‘북한 핵위협 제거(Removing The Nuclear Threat)’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공격해야 할 북한의 주요 목표물과 정밀타격에 필요한 폭격기와 미사일, 유도폭탄 등을 적시한 정밀타격 작전 시나리오를 담음.
- 이 보고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핵 시설과 핵 무력을 정밀공습하겠다는 극히 도발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현 미국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조선 제재 압박과 핵전쟁 책동의 연장”이라고 반발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무력 침공이 본격적으로 검토, 준비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함.

2016. 6. 17.

■ **美CIA국장, 새 대통령에 첫 보고 현안은 사이버안보-테러-북핵(연합뉴스)**

- 미국 정보 당국이 내년 초 취임할 새 미국 대통령에게 최우선으로 보고할 현안에 사이버 안보 및 테러 대책과 더불어 북핵 문제가 포함됨.
-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6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만약 당신이 정권인계 작업을 돕는다면 새 대통령에게 적색 경고등(blinking red·시급한 현안)이 켜진 현안으로 무엇을 먼저 보고하겠느냐’는 제임스 랭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힘.
- 브레넌 국장은 사이버 안보, 테러, 북핵을 차례로 병렬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핵에 대해 “북한과 김정은의 잇따른 도발, 그리고 핵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명백해진 핵확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함. 그러면서 “북핵은 역내(한반도)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위협”이라고 우려함.

■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국 하원 위원회 통과(연합뉴스)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함.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의결함.
-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김.
- 법안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포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함.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힘.

■ 美 전사자 유해발굴 담당관, 北에 6천여구·찾을 준비돼 있다(연합뉴스)

-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은 7천834명에 달합니다.”
-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의 마이클 게인 대령은 16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사무실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사 편집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함. 게인 대령은 “(아직 찾지 못한 6·25 전사자 7천834명 가운데) 남한에는 1천500명 이상, 북한에는 6천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함. 북한 지역에서 찾지 못한 미군 유해가 훨씬 많다는 얘기임.
- 게인 대령은 “기회가 생기면 당장 북한에서 작업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 지역 미군 유해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침. 그러나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로 북미관계가 극도로 냉각돼 북한 지역의 미군 유해를 찾는 것도 요원해짐. 게인 대령도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함.

나. 북·중 관계

2016. 6. 12.

■ 中, 단둥주재 北공직원 구속, 53억원 압수...금지물품 밀수 관여(연합뉴스)

- 중국 치안 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거액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북수의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이 간부 구속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하고 지난 2일 귀국하고 나서 며칠 지나 이뤄짐.
- 한 북중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최근 북중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2016. 6. 13.

■ **北中, 7월11일 우호조약 55주년 기념 고위급 상호방문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내달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 기념일을 맞아 고위급 인사를 상대국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됨.
-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13일 “통상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의 경우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고위급들이 상호 파견된 관행이 있다”면서 “올해 55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북·중 간 고위급 인사의 파견 문제에 대해 물밑 논의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급의 대표단이 방문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북·중 양국은 이 조약 자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북·중이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의 창당 95주년을 맞아 최고지도부 간의 축전 교환 등을 할 가능성도 점쳐짐.

■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반 토막(연합뉴스)**

- 북한 동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어선 조업으로 연간 생산 감소액과 오징어 가공품 생산 감소액이 430억~800억 원에 이르고, 연관산업 피해액 200억 원대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고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어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획증명제와 한·러 어업위원회 회를 통한 우리 어선의 조업 여건개선, 중국어선의 위치 발생기 설치 의무화 추진

등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2016. 6. 14.

■ **중화자 “北, 핵실험 또 하면 中 인내 한계”(연합뉴스)**

- 중국학자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중국 사회과학원 왕권성 부교수는 미국 민간연구소 스텐센센터가 13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레드라인(마지막 인내단계)이 있다면 북한이 다시 한 번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베이징대학 국제전략대학원 우티에권 부학장은 “중국의 대 한반도 최우선 정책이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시진핑 주석 취임 후에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며 “시 주석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취임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도 중국과 북한의 어색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함.

2016. 6. 15.

■ **중훈춘-북한 교통시설 확충 사업 활발(미국의소리)**

- 중국 훈춘(珲春)시와 북한을 잇는 교통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연변 지역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함.
- VOA는 “중국 훈춘시 취안허(琿河)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 통상구를 잇는 새 교량 공사가 오는 9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된다”며 이같이 전함.
- 또 훈춘과 라진항을 잇는 85.6km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도 북한과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덧붙임.

■ **中, 핵·미사일 전용 가능 품목 40여종 대북수출 추가금지(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함.
-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감.
-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금지 물품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거액의 현금을 압수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음.

2016. 6. 16.

■ 中, 유엔 대북결의 철저이행...필요시 추가조치 시사(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자국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조치와 관련해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거듭 밝힘.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성의 있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안보리가 통과시킨 관련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스스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공고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함.
- 우리 외교부는 15일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평가한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도 철저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

2016. 6. 17.

■ 중국, 당 대회에 고관 보내달라 반복된 北요청 거절(연합뉴스)

- 북한이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에 고위 관료를 보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초 열린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초청했으나 중국 측은 ‘공산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고 북한 소식통들이 밝힘. 이에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한 명이 방북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난색을 보이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열린 당 대회에 외빈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우호국 정부나 당 대표단의 방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고 반응함.

다. 북·일 관계

2016. 6. 15.

■ **NHK “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향상 추진”(연합뉴스)**

- 일본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자국으로 날아올 때 요격하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15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부터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요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조에 착수해 5년 후에 개선된 장비를 운용한다는 목표를 세움.
-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PAC3의 요격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짐.

2016. 6. 17.

■ **日 돗토리현 해안서 北미사일 파편 추정 물체 발견돼(연합뉴스)**

- 일본 서부 돗토리(鳥取)현 유리하마초(湯梨浜町)의 해안에서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과거 발사한 미사일의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함.
- 돗토리현에 따르면 이 물체는 길이 1.8m, 폭 1.2m의 원추형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께 해안 순찰을 하던 현 직원이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을 발견함.
- 이 물체는 한국에서 공개됐던 북한의 미사일 파편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 방위성과 경찰 등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음.

라. 북·러 관계

2016. 6. 14.

■ **북러 교역량 소폭 감소…北수산물 수출은 늘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러시아간 전체 교역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은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관이 러시아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6 1분기 러시아 북한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국 교역액은 1천712만 달러(한화 200억여원)를 기록했다고 이 매체는 밝힘.
- 특히 북한은 해당 기간 냉동 수산물 282만 달러어치를 러시아에 수출해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액(166만 달러) 규모를 넘어섬. RFA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북한의 대리 수출 규모가 지난해 수치(572만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함.

2016. 6. 15.

■ **러 당국자, 北 핵활동으로 핵실험금지조약 관심 높아져(연합뉴스)**

- 북한의 핵활동으로 20년째 발효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러시아 당국자가 주장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기구 주재 러시아 대사 블라디미르 보론코프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면 CTBT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보론코프는 “CTBT 비준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비준까지 마친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조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조약 비(非)참여국의 핵개발에 대한 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6. 14.

■ **EU, 대북 외교교류 보류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이 당분간 북한과 외교적 교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외교 소식통이 전망함.
-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외교소식통은 “EU와 북한 간 외교적 방문이나 의원 교류 등이 한동안 보류될 것”이라며 “지난달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사망 이후 그의 외교팀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EU는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사치품 등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함.

■ **탄자니아 북한병원 이용 환자, 의료진 상대 소송 준비(연합뉴스)**

- 탄자니아 북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탄자니아 환자 측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피해환자의 아버지 실베스타 웨이요 씨는 탄자니아 유력 일간지 더시티즌에 “(탄자니아 다레살람의 테메케 북한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함.
- 하지만 북한병원 소속 의사 4명은 현지 신문사를 방문, “가브리엘이라는 환자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함. 이 같은 행동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북한병원 13개 가운데 3개가 탄자니아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강제폐쇄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RFA는 전함.

2016. 6. 15.

■ 北, 美 이어 유엔에 공개서한…사무총장 통일문제 기여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사무국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은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에서 지난 9일 채택된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13일 유엔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명의의 공개서한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사무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세계 최대의 관심이 쏠려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써 유엔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페이지)를 새겨놓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2016. 6. 16.

■ 북핵 조달채널 차단…원자력공급그룹 다음 주 서울총회(연합뉴스)

-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의 국제 수출통제 기구인 원자력공급그룹(NSG)의 총회가 20~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임.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관련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외교부는 16일 “제26차 원자력공급그룹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48개 NSG 회원국의 정부 인사와 수출통제 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 등의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질·장비·기술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의장은 우리나라의 송영완 주(駐) 오스트리아 대사가 맡음.

■ EU, 북한 고려항공 역내 취항제한 조치 유지(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EU 역내 취항 제한 조치를 유지함.
-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EU 항공안전 리스트’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을 ‘부칙 B’ 등급에 해당하는 운항 제한 항공사 명단에 남겨둠.
-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계속 EU 회원

국 취항이 금지됨. EU는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9개국 216개 항공사에 대해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려항공 등 6개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6. 13.

■ 북한 핵탄두 10개 추정...전 세계엔 1만5천395개(연합뉴스)

- 잇따른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는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스웨덴에 있는 조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핵탄두의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현황을 소개함. SIPRI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으나 근거가 석연치 않은 곳도 있다고 밝힘.

■ 북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준비 확인...대기업 문서 4만여 건 해킹(연합뉴스)

- 북한이 국내 대기업 전산망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 10만대가 넘는 PC의 통제권을 탈취,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남.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이버테러 관련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힘.
-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가적 규모의 사이버테러를 시도하고자 장기간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그룹사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서버와 PC 통제권을 탈취하고서도 이를 감춰둔 채 또 다른 공격 대상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함.

■ PC '중앙집중' 관리 시스템 허점 간파...진화하는 北사이버공격(연합뉴스)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음. 기업체 등 다수 PC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전산망을 장악한 뒤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임
- 경찰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북한발 국내 대기업 전산망 공격 사건에서도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PC 통합관리망이 침입 경로로 활용됐다. 2개 대기업 계열사 PC 13만대가 여기에 연결돼 하마터면 대규모 공격의 좀비 PC로 활용될 뻔함.
- 경찰 관계자는 “IT 발달 정도에 비해 보안강화 비용 지출에 대한 기업 등의 의식이

낮은 점은 문제”라며 “그렇다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 전산망의 취약점을 관리하려 들면 또 다른 ‘감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함.

2016. 6. 14.

■ **北,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대남 사이버테러 준비(연합뉴스)**

- 몇 달 전 국내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테러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난 북한이 아프리카까지 진출해 대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14일 나옴.
-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사이버 공작 요원들이 아프리카 내 거점 국가로 가서 대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했다”며 “이는 해킹 흔적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북한이 지난 2월 국내 대기업과 정부 부처 등 160여 곳에서 사용하는 PC 13만여 대의 통제권을 탈취,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힘.

2016. 6. 15.

■ **美 전문가 “北, 무수단 발사 실패 통해 기술 축적”(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4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를 통해 기술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미국 로켓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VOA에 “실패한 발사 시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가 적지 않다”며 “발사 장치를 비롯한 일부 기기는 발사 이후 불과 몇 초안에 시험할 수 있다”고 말함.
- “북한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 현재 큰 기술적 문제에 부딪힌 것 같다”며 “결국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실패의 원인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임.

■ **美연구기관 ISIS “北, 지난 18개월간 보유 핵무기 4~6개 추가”(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8개월 동안 보유 핵무기 수를 4~6개 더 늘렸을 것이라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추정함.
- 이 연구기관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로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원료물질을 늘려 온 북한이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6. 6. 17.

■ **美북핵전문가 “北,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50개 보유”(연합뉴스)**

- 미국의 북핵 전문가가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지난해의 자체 전망치를 뒤집고 최대 50개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당초 전망했던 핵무기 최대치에는 분명히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당시 중간치로 예상했던 핵무기 50개, 혹은 그 미만이 좀 더 적절한 수치 같다”고 말함.
-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지난 14일 북한이 최근 18개월 동안 핵무기를 4~6개 늘려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13		美 핵잠수함 '미시시피호' 한국 도착... 대북 경고메시지(연합뉴스)
	6.14	朴대통령, 美올랜도 테러 희생자 애도... 오바마에 위로전(연합뉴스)	
	6.15	朴대통령 "한미, 北비핵화 우선 원칙 따 라 공조 강화해야"(연합뉴스)	美태평양사령부 소장, 北미사일 방어위 해 한반도 사드배치 필요(연합뉴스)
	6.16		브룩스 사령관, 北위협 대응해 육·해·공 군 합동성 강화해야(연합뉴스)
			미군 고위관계자, 정보공유 측면서 한미 일 공군 활동 활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13		북한연안 도주 중국어선 10여척 한강하 구 빠져나가(연합뉴스)
	6.14	한중 내일 영사국장회의...북중접경지 우리국민 안전 논의(연합뉴스)	
	6.15		中, 한중일 정상회의 G20 이후에...한국 에 전달(연합뉴스)
	6.17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14		日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신임에 주 한공사 출신 가나스키(연합뉴스)
	6.15	한·미·일 '중동' 첫 협의...3자협력 글로벌 무대로 확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6.13	한-러 외무, 北핵보유국 지위 인정 못해...비핵화에 협력(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13	시진핑, 오바마에 위로전...美 총기난사 희생자 애도(연합뉴스)	
	6.14		中, 대만 총통-달라이 라마 방문 美에 경고(연합뉴스)
	6.15	美태평양사령관, 中군함 센카쿠 접근에 불확실성 증가(연합뉴스)	
		美中, 사이버범죄 공동대응 강화...하라인 세부운영계획 합의(연합뉴스)	
		美국무부, 中의 대북수출 추가금지에 약속이행의 발걸음 환영(연합뉴스)	
	6.17	오바마, 달라이라마와 네번째 회동...中, 美 내정간섭 발끈(연합뉴스)	
루 美재무 “중국 환율정책 회귀, 미국과의 긴장 부를것”(연합뉴스)			
			美학자, 中공산당 체제 생각만큼 허약하지 않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17		日피폭자단체 “오바마 히로시마연설, 미국 책임 회피했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12		신냉전 조짐 속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증강(연합뉴스)
	6.15		러시아 “러 해커, 美 민주당 전산망 해킹 사실 아냐”(연합뉴스)
	6.16	美태평양공군사령부 소장 “러시아, 아태지역 공중활동 크게 늘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12		아베, '中 견제 외교' 차원 ASEM·EAS 참가 검토(연합뉴스)
	6.13	日, 센카쿠 군함접근 제차 항의...中, 항의 수용 못해(연합뉴스)	
	6.14		日외무상, 바다에서 범의 지배 중요...중국 견제(연합뉴스)
		中日, 이번엔 '중해양조사선 EEZ 진입' 문제로 신경전(연합뉴스)	
	6.15		日방위성, 中 정보수집함이 한때 일본 영해 침범(연합뉴스)
	6.16	연합훈련 vs 항행의 자유...中日 동중국해 갈등 격화(연합뉴스)	
	6.17	중국군, 中합정 일본근해 통과는 합법...일본이 계속 억측(연합뉴스)	中군함, 또 일본 접속수역 항행...日, 매우 우려할 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6.15	몸집 불리는 中·러 주도 안보기구 SCO...가입 신청 붓물(연합뉴스)	
	6.16	단짜 시진핑·푸틴 회동 압박...북핵압박, 사드공조 예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6.17		러 하원의장 아베 면담...9월 동방경제 포럼 초청(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6. 13.

■ 美 핵잠수함 ‘미시시피호’ 한국 도착…대북 경고메시지(연합뉴스)

- 미국의 전략무기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호가 13일 한국에 도착함.
- 미 해군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미시시피호(SSN-782)가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다”며 “미시시피호의 한국 방문은 한미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해군의 유대를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군 관계자는 “미시시피호는 한반도가 작전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라며 “미시시피호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함.

2016. 6. 14.

■ 朴대통령, 美올랜도 테러 희생자 애도…오바마에 위로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내고 희생자들을 애도함.
- 박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12일 오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의 충격 테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저와 우리 국민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함.
-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님의 리더십하에 미국 국민이 하루속히 이번 참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6. 6. 15.

■ 美태평양사령부 소장, 北미사일 방어위해 한반도 사드배치 필요(연합뉴스)

-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마크 몽고메리 작전본부장(해군 소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몽고메리 본부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사령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 편집인들과 만나 “사드는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방어용 시스템”이라고 강조함.
- 이밖에 몽고메리 본부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어 영수자오<永暑礁>)와 같은 인공섬을 7개나 만들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변국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함.

■ **朴대통령 “한미, 北비핵화 우선 원칙 따라 공조 강화해야”(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 견지 하에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반복 발사 시험 등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날 접견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테런스 오샤너시 미7공군 사령관,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 등이 배석함.

2016. 6. 16.

■ **브룩스 사령관, 北위협 대응해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해야(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6일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브룩스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최로 열린 ‘2016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합동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이순진 합참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합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미군 고위관계자, 정보공유 측면서 한미일 공군 활동 활발(연합뉴스)**

- 미군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 공군의 협력 문제에 대해 “정보

- 공유 측면에서 한미일 3자 간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국내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3국 간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유) 약정을 활용할 것을 3국 공군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안정화 요소”라며 “탄도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 같은 비대칭 전력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힘.

나. 한·중 관계

2016. 6. 13.

■ 북한연안 도주 중국어선 10여척 한강하구 빠져나가(연합뉴스)

- 우리 군과 해경, 유엔사로 편성된 민정경찰의 퇴거작전 과정에서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이 모두 한강하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이 현재 한강하구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어선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우리 군이 유엔사 군정위 요원과 함께 민정경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도 처음으로 진행됨.

2016. 6. 14.

■ 한중 내일 영사국장회의…북중접경지 우리국민 안전 논의(연합뉴스)

-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힘.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귀사오춘(郭少春) 외교부 영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임.
- 외교부는 “상호 방문객 1천만 명이 넘는 시대를 맞이해 양국 간 출입국·체류 관련 편의증진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자국민 권익보호 등 영사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2016. 6. 15.

■ 中, 한중일 정상회의 G20 이후에…한국에 전달(연합뉴스)

- 중국이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를 올해 9월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루자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G20 회의 때까지는 일본이 올해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3국 회의를 위한 사전 조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했다고 복수의 한중 관계 소식통이 전함. 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최근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기항하고 일본이 호주·인도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 등을 이유로 거론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임.
-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3국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작년 11월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 3국 협력체제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6. 14.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신임에 주한공사 출신 가나스키(연합뉴스)

-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 대표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교체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56) 외무성 경제국장을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 선임하는 등 내용의 인사안을 의결함.
- 가나스키는 향후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카운터파트로서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해 군위안부 합의 이행 등 양자 현안을 논의하게 됨.

2016. 6. 15.

■ 한·미·일 ‘중동’ 첫 협의…3자협력 글로벌 무대로 확대(연합뉴스)

- 한·미·일 3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의 하나인 중동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 이는 북한 위협 대처를 목표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에 초점을 맞춰온 3자 협력이 글로벌 무대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보여 주목됨.
- 일각에서는 앞으로 중동사태의 추이에 따라 3국 차원의 인도주의 또는 경제지원은 물론이고 군사 지원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소식통들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함.

라. 한·러 관계

2016. 6. 13.

■ 한·러 외무, 北핵보유국 지위 인정 못해…비핵화에 협력(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 양국은 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이날 회담 뒤 양자 관계, 북핵, 유엔, 북극, 테러, 공보, 영사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2016-2017년 양국 외교부 간 교류계획서’에 서명함. 윤장관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14일 현지에서 열리는 '한-러 대화 정치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임.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6. 13.

■ 시진핑, 오바마에 위로전…美 총기난사 희생자 애도(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냄.
-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보낸 위로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인을 대표해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에게 깊은 동정의 뜻을 표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이어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메시지도 함께 전함.

2016. 6. 14.

■ 中, 대만 총통·달라이 라마 방문 美에 경고(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차이잉윈(蔡英文) 대만 총통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미와 관련, 미국 측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며 강하게 경고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안이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한 문제”라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점을 엄숙히 약속했

다"고 주장함. 루 대변인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는 미국 정부에 스스로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2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으로 중국을 분리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에 그 어떤 토양(장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면담할 경우 더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목소리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됨.

2016. 6. 15.

■ 美태평양사령관, 中군함 센카쿠 접근에 불확실성 증가(연합뉴스)

-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최근 중국 군함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 다오<釣魚島>)열도에 근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일본을 방문 중인 스위프트 사령관은 15일 보도된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불확실성,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동중국해 정세를 분석함.
-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것은 대화다. 문제는 억압이나 무력으로 의견을 억지로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미군이 “자위대의 능력 증강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함.

■ 美中, 사이버범죄 공동대응 강화... 핫라인 세부운영계획 합의(연합뉴스)

- 미중 양국이 사이버 안보분야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담을 열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담에 중국 측의 귀성쿤(郭聲琨) 공안부장, 미국 측의 수전 스폴딩 국토안보부 장관 및 브루스 스위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함.
- 양측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의 제1차 회담에서 합의했던 미중 핫라인 설치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함. 올해 말 워싱턴에서 제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함.

■ 美국무부, 中의 대북수출 추가금지에 약속이행의 발걸음 환영(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냄.
- 애나 리치-알렌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안보리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고, 또 중국 관리들은 그동안 결의안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함.

-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40여 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감.

2016. 6. 15.

■ **오바마, 달라이라마와 네 번째 회동…中, 美 내정간섭 발끈(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회동함. 두 사람의 만남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취임한 이후 네 번째임.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회동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음.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일례로 공식 집무실이 아니라 맞은편의 백악관 관저에서 만난 것은 이번 회동의 개인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함.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에 감사했고 티베트의 종교·문화 언어전통을 보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중국은 그러나 이번 회동 자체에 대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함.

2016. 6. 17.

■ **루 美재무 “중국 환율정책 회귀, 미국과의 긴장 부를것”(연합뉴스)**

- 중국이 이전에 행했던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 정책으로 다시 회귀한다면 미국과의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경고함.
- 루 장관은 정책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의 취약한 세계경제 성장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 어떤 형태로든 과거의 환율정책과 수출주도 성장구조로 회귀한다면, 두 나라(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함.

- 루 장관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지도력이 “성장 촉진과 세계 경제 개발” 등을 위한 촉매라며, 특히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데 계속해서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美학자, 中共산당 체제 생각만큼 허약하지 않다(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일부 분석과는 달리 그다지 허약하지 않다고 미국 학자가 17일 주장함.
- 미국 컬럼비아대 중국정치 전문가인 앤드루 나탄 교수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정체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을 반박함.
- 하지만 나탄 교수는 ‘반란과도 일리가 있다’고 한 마오의 구호 대신 ‘경청이 일리가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반대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6. 6. 17.

■ **日피폭자단체 “오바마 히로시마연설, 미국 책임 회피했다”(연합뉴스)**

- 일본 피폭자 단체 중 유일한 전국조직인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미국의 원폭 책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함.
- 1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15~16일 도쿄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채택한 결의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연설하며 ‘하늘에서 죽음이 떨어졌다’고 한 것은 “자연 현상처럼 말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함.
- 협의회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것에 대한 사죄의 증거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층 더 요구한다”고 밝힘.

다. 미·러 관계

2016. 6. 12.

■ **신냉전 조짐 속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 증강(연합뉴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 간에 ‘신(新)냉전’ 조짐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흑해와 지중해를 담당하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력이 크게 증강됨.
-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 이타르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흑해함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모항인 세바스토폴에서 배수량 4천t급의 최신예 호위함 아드미랄 그리고로비치함을 취역시킴.

- 한편 러시아는 나머지 3척의 호위함은 인도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음.

2016. 6. 15.

■ 러시아 “러 해커, 美 민주당 전산망 해킹 사실 아냐”(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전산망에 침투해 대선 관련 자료 등을 빼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러시아가 반박함.
-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나 정부 기관이 해킹 사건에 간여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고 주장함.
- 미국 NBC방송은 이날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팀이 작년 여름부터 민주당 전국위의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통신 내용을 겨냥한 해킹을 했다면서 연말 대선에 대비해 DNC가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들을 분석·추적해 놓은 자료가 러시아팀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됐다고 보도함.

2016. 6. 16.

■ 美태평양공군사령부 소장 “러시아, 아태지역 공중활동 크게 늘려”(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의 마크 딜런 소장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공중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 미 공군이 이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딜런 소장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 예하 허컴공군기지에서 국내 언론사의 편집인들을 만나 “러시아의 경우 이 지역에 재등장해 우려되고 있다”면서 “러시아 공군이 장거리 비행을 하고 알래스카나 괌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한국, 미국, 일본 공군의 연합 훈련 가능성을 묻자, “정보 공유 측면에서 한미일 3자 간 활동이 활발하다”면서 “3국 간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유) 약정을 활용할 것을 3국 공군에 독려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함.

라. 중·일 관계

2016. 6. 12.

■ 아베, '중 견제 외교' 차원 ASEM·EAS 참가 검토(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견제를 위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전함.
- ASEM은 다음 달 15일 몽골에서, EAS는 9월 라오스에서 각각 개최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화에 반발하는 필리핀, 베트남도 이들 회의에 참가하는 만큼 해양 안전보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이 최근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 진입했던 것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2016. 6. 13.

■ 日, 센카쿠 군함접근 재차 항의…中, 항의 수용 못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함이 근접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재차 항의함.
-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연안에서 약 22~44km 구간)으로 규정한 해역에서 최근 중국 군함이 항행한 것에 대해 이토 고이치(伊藤康一) 주중일본대사관 공사가 12일 오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샤오첸(肖千) 이주사(司) 사장을 찾아가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다.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응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2016. 6. 14.

■ 日외무상, 바다에서 법의 지배 중요…중국 견제(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4일 “일본은 앞으로도 바다에서의 법의 지배와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함.
- 교도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섬 영유권 갈등 관련 논의를 위해 이날 중국 윈난(雲南)성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외무장관 특별회의에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로,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이라고 강조함.

■ **中日, 이번엔 ‘중해양조사선 EEZ 진입’ 문제로 신경전(연합뉴스)**

- 중국과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이 자국 주변 해역에 중국선박이 잇따라 출몰하는 상황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음.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해양조사선 커췌(科學)호가 전날 오후 3시20분(현지시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km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향해했다고 전함.
- 양국은 2012년 10월에도 중국 해양조사선 커췌 3호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서 해저 광물 조사 작업을 벌인 것을 놓고 마찰을 빚음. 특히 이달 9일에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수역에 첫 진입한 것을 놓고 험악한 외교적 공방전을 주고받음.

2016. 6. 15.

■ **日방위성, 中 정보수집함이 한때 일본 영해 침범(연합뉴스)**

- 15일 오전 3시 30분께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 1척이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 서쪽 일본 영해를 일시 침범했다고 방위성이 밝힘.
- 방위성은 보도자료에서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이곳에서 남동진하는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을 확인했다”며 “이 함선은 오전 5시께 야쿠시마(屋久島) 남쪽을 통해 영해를 빠져나가 남동쪽으로 갔다”고 밝힘.
- 앞서 지난 9일 새벽에도 오키나와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앞바다의 일본 영해 밖 접속수역(22~44km)에 중국 해군 군함이 진입해 외무성이 항의한 바 있음.

2016. 6. 16.

■ **연합훈련 vs 항행의 자유…中日 동중국해 갈등 격화(연합뉴스)**

-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해상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 인도와 손을 잡고 인근 수역에서 공개적으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나섬. 중국은 이에 반발해 그간 미국·일본이 내세워 온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일본 영해를 통과하거나 일본과 손잡은 국가의 선박을 사실상 추적하는 등 반발하고 있음.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열어 직접 자제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2016. 6. 17.

■ **中군함, 또 일본 접속수역 항행...日, 매우 우려할 일(연합뉴스)**

- 동중국해에서 중일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군함이 또 일본의 접속수역(연안서 22~44km 구간)을 항행함.
- 교도통신에 의하면, 16일 오후 3시 5분께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 1척이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기타다이토(北大東) 섬 주변 접속수역을 통과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함.
- 접속수역을 항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없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로 미뤄 '도발성 조치'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예측 못 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분명히 행동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우려의 뜻을 전함.

■ **중국군, 中합정 일본근해 통과는 합법...일본이 계속 억측(연합뉴스)**

- 중국군 당국은 17일 중국해군 함정이 또다시 일본의 접속수역(연안서 22~44km 구간)을 항행한 데 대해 "완전히 관련 국제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17일 중국일보(中國日報)이 제기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6월 16일 중국해군 함정이 정상 항행하던 도중 일본 근해 해역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함.
- 앞서 지난 9일 0시 50분께에도 중국 해군 소속 프리깃함 1척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일본이 '접속수역'로 규정한 해역 안에 진입해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

마. 중·러 관계

2016. 6. 15.

■ **몸집 불리는 中·러 주도 안보기구 SCO...가입 신청 붐물(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지역 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 15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라시드 이리모프 SCO 사무총장은 최근 5개국이 SCO ‘대화 파트너’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이리모프 사무총장은 “5개국은 동유럽 1곳, 중동 3곳, 동남아 1곳”이라며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국가명은 거명할 수 없다”고 덧붙임.

- 미국 등은 중국과 러시아가 SCO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보 측면에서는 서방을 견제하는 유라시아판 ‘나토’(NATO)를 결성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함. SCO는 지난달 외교장관 회담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함.

2016. 6. 16.

■ 단짠 시진핑·푸틴 회동 임박··북핵압박, 사드공조 예고(연합뉴스)

-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격상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달 방중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밀착모드를 연출할 것으로 보임.
- 16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리후이라이(李惠來)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르비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순방 일정 등을 설명하며 푸틴 대통령의 6월 방중 계획도 확인함.
-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언급하지 않음.

바. 일·러 관계

2016. 6. 17.

■ 러 하원의장 아베 면담··9월 동방경제포럼 초청(연합뉴스)

-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은 17일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초청했다고 밝힘.
-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도쿄의 한 행사에 참가한 자리에서 “전날 아베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러나 이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무력 병합 사태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러일 간 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보지 못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6.12	유엔인권보고관, 北인권은 강제노동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문제(연합뉴스)
	6.13	유엔 '북 인권 규명' 전문가단 구성 추진(연합뉴스)
	6.15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 3명으로 압축(자유아시아방송)
	6.16	유엔 가족 송금의 날, 탈북민들 높은 수수료 때문에 가슴앓이(미국의소리) 뉴욕서 한국전쟁 66주년 맞아 '北인권고발' 음악회(연합뉴스)
	6.17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년...北인권범죄 조사 본격화(연합뉴스) 북한, 종교인에 가장 위험한 나라<벨기에 인권단체>(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6.15	탈북자단체 '6·15선언 파기한 김정은' 규탄 전단 살포(연합뉴스)
	6.17	김형식,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6.13	탈북자 EU 망명길 좁아졌다...김정은 체제 출범 후 신청 급감(연합뉴스)
남북자 국문포로	6.15	47년전 KAL기 남북 피해자 송환 촉구(연합뉴스)
대북지원	6.11	北, 올해 식량 69만여t 부족...2011년 이래 최대규모(연합뉴스)
	6.14	EU, 대북 외교교류 보류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6.15	미 NGO, 대북 의약품 지원 계획 없어(연합뉴스)
	6.16	北 2분기 1인당 하루 식량배급 360g...유엔 권장량 60%(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6. 12.

■ 유엔인권보고관, 北인권은 강제노동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문제(연합뉴스)

-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북한 주민도 경제가 낙후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한 변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함.
- 인도네시아에서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돼 6년간 활동함. 지난주 열린 유엔특별절차 운영위원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한 후 9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단순히 강제노동 등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까지 포함하는 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냄.
- 6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살펴본 다루스만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만 할 뿐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야 한다”고 임기를 돌아봄.

2016. 6. 13.

■ 유엔, ‘북 인권 규명’ 전문가단 구성 추진(연합뉴스)

-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가 유엔본부에서 개막됨.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번 이사회 결의 31/18호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권고할 수 있는 유엔 차원의 독자적인 ‘전문가단’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의 키스 하퍼 대사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북한 어린이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구금돼 있다고 지적함. 하퍼 대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 주민들이 고문, 성폭력, 그리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함.
- 또,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함.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의 활동에 협력하고, 관련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은 예년과 달리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인권 상황 지적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음.

2016. 6. 15.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 3명으로 압축(자유아시아방송)

-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RFA는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공보 담당의 말을 인용해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유력 후보 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면서 토마스 오헤야 퀴타나(아르헨티나)와 피에르 소브(카메룬),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 등 후보 3명을 소개함.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2016. 6. 16.

■ 유엔 가족 송금의 날, 탈북민들 높은 수수료 때문에 가슴앓이(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카나오 응완제 총재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함.
-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따르면 탈북민 64%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한국 내 탈북민 400 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대북 송금 비율이 2012년 47.4%에서 지난해에는 64%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 탈북민들의 송금 횟수는 연평균 1.56회, 한 번 송금할 때 평균 2천 달러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내 탈북민 2만9천여 명 가운데 성인 1만 명이 연간 2천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2천만 달러 이상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임.
- 하지만 이 돈이 국제 관례와는 달리 일부 중개수수료만 제외하고 북한 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함.

■ 뉴욕서 한국전쟁 66주년 맞아 '北인권고발' 음악회(연합뉴스)

- 미국 뉴욕의 한인들이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하는 행사를 열 예정임. 오는 25일(미국 현지시간) 저녁 뉴욕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는 ‘6·25전쟁 66주기 평화·북한 인권 콘서트’가 열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측은 15일 “지난해 행사가 참전국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 행사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명하고 미래 세대에 게 참혹했던 6·25전쟁의 실상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함.
- 음악회에서는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20대 탈북 유학생이 참석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과 인권 실상을 증언할 예정임. 행사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주요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도 참석할 예정임.

2016. 6. 17.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년…北인권범죄 조사 본격화(연합뉴스)

- 오는 23일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지 1년이 됨.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설치됨.
- 시나 폴슨 소장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탈북민 대상 인터뷰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 이후 북한인권 사무소의 북한 인권 범죄사례 수집은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것은 북한 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문가 패널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수집한 자료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이 조사한 자료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함께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함.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사무소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첫째,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유엔의 관리대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 국내 정치 및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으며, 셋째로 북한 인권범죄 기록 활동은 향후 통일 때 법적 청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북한, 종교인에 가장 위험한 나라(벨기에 인권단체)(연합뉴스)

-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을 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하나로 꼽음.
- 벨기에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HRWF)은 최근 공개한 '연례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이란과 함께 기본적인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종교인을 투옥한 20개국의 하나로 꼽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의 양심수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종교적 박해를 묘사한 지도에서 까만 점으로 남아 있다"면서도 "지난해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한국인 3명 등 모두 4명의 외국 국적 기독교인을 수감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함.
- 윌리 포트레 '국경없는 인권' 대표는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체포되고 있다"며 "외국 기독교인의 수감 사실이 밝혀진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함. 이 단체는 오는 29일 영국 의회에서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6. 15.

■ 탈북자단체 '6·15선언 파기한 김정은' 규탄 전단 살포(연합뉴스)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4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대북전단 30만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고 15일 밝힘.
- 전단에는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간에 맺은 평화·인도주의적 협정을 기만하고 파기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김.
- 이 단체는 1달러 지폐 2천장, 6·15 공동선언 등 남북교류 내용이 담긴 USB·DVD 1천개도 전단과 함께 날려 보냄.

2016. 6. 17.

■ 김황식,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돼(연합뉴스)

- 김황식 전 총리는 17일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밝힘.

- 김 전 총리는 서울 방배동 ‘물망초 인권연구소’에서 열린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독일 통일이 동독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듯이 우리도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친화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양실조 질병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 부녀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6. 6. 13.

■ 탈북자 EU 망명길 좁아졌다…김정은 체제 출범 후 신청 급감(연합뉴스)

- 북한을 떠난 탈북자 가운데 1천600여 명이 최근 8년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망명했거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또 EU 정착을 선택한 탈북자의 수는 2013년 38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각각 120명 선으로 급감함.
-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 전체 규모가 줄어든 데다가 국내에 정착한 전력을 숨기고 EU로 가려던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 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탈북자는 한국행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재북 가족의 안전 등을 이유로 EU나 미국행을 타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EU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가운데는 한국에 정착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게 되자 ‘최초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다시 EU로 망명했거나 망명하려는 탈북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2013년 이후 EU로 망명했거나 망명을 처음 신청한 탈북자의 수가 급감한 데 대해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 규모가 당초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도 있지만, 우리 정부와 EU 회원국들이 ‘위장망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016. 6. 15.

■ 47년전 KAL기 남북 피해자 송환 촉구(연합뉴스)

- 한국에서 탈북자 영어교육을 하는 단체 TNKR(Teach North Korean Refugees)는 오는 1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47년 전 남북된 대한항공(KAL) YS-11기 승객의 조속한 인도를 촉구할 예정임.

- 이 단체의 케이스 라티그(Casey Lartigue Jr.) 공동대표는 지난봄 한국 국회에서 개최된 국제자원봉사자워크숍(Int'l Volunteers Workshop)에서 납북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로부터 대한항공기 납북 사건에 대해 듣고 돕기로 했다고 말함.
-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승무원과 승객 50명이 탑승한 강릉발 김포행 여객기를 납치했고, 두 달 후인 1970년 2월 14일 납북 피해자 50명 중 39명을 한국으로 돌려 보냄. 그러나, 당시 MBC방송 프로듀서로 출장차 비행기에 탑승했던 황 씨의 아버지 황원 씨 등 11명은 돌려 보내지 않았고,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생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이미 수 년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생사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평양에서 수 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말을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힘.

5. 대북지원

2016. 6. 11.

■ 北, 올해 식량 69만t 부족…2011년 이래 최대규모(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2011년 이후 최대규모인 69만4천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FAO는 이날 “2015~16년 양곡 연도 기준으로 북한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4천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은 VOA에 “모심기를 하려면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벼 생산을 포기하고 거기다 다른 작물을 심었던 것”이라고 설명함.

2016. 6. 14.

■ EU, 대북 외교교류 보류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이 당분간 북한과 외교적 교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외교 소식통이 전망함.
-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외교소식통은 “EU와 북한 간 외교적 방문이나 의원 교류 등이 한동안 보류될 것”이라며 “지난달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사망 이후 그의 외교팀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

송(RFA)이 14일 보도함.

- EU 대변인도 올해 핀란드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30만 유로의 재난대응기금 이외에 추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및 재난대응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정치 대화 일정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2016. 6. 15.

■ 미 NGO, 대북 의약품 지원 계획 없어(연합뉴스)

- 미국의 대북 인도적 의료 지원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지난 2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지원될 의약품과 구호품 8t을 지원함. 하지만 아메리카어스는 매년 여러 차례 대북 의약품 지원을 하던 터라, 대북 의약품 지원 잠정 중단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추측을 낳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두 차례의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음.

2016. 6. 16.

■ 北 2분기 1인당 하루 식량배급 360g…유엔 권장량 60%(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올해 2분기에 유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1인당 하루 360g의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동아시아 담당관은 VOA에 “올해 2분기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 360g은 지난해 같은 기간(410g)에 비해 12% 적고 1분기 배급량(370g)보다도 10g 감소한 것”이라고 전함.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1인당 하루 배급량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매체는 설명함.
- FAO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4천에 이른다”며 북한이 양곡 연도 2015~2016년 기준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4천가량이 부족하다고 예상함. 이 같은 식량 부족분은 지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FAO는 평가함.